

#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왕중산<sup>1</sup>, 구자풍<sup>2</sup>, 김영문<sup>3\*</sup>

<sup>1</sup>호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sup>2</sup>포항대학교 물리치료과, <sup>3</sup>호원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Support on Start-up Intentions in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Joong San Wang<sup>1</sup>, Ja Pung Koo<sup>2</sup>, Young Moon Kim<sup>3\*</sup>

<sup>1</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How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Poha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H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4년제 물리치료학과 대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를 측정하였다. PLS-SEM을 이용한 경로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p=0.150$ )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험감수성( $p=0.000$ )과 진취성( $p=0.001$ )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적지지( $p=0.092$ ), 물리적지지( $p=0.280$ ), 정보적지지( $p=0.813$ )는 모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특강을 경험한 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창업특강에 참여한 학생에서 창업의지( $Z=-1.986$   $p=0.047$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 본 연구를 통해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지지를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ocial support on the start-up intentions of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Entrepreneurship, social support, and the start-up intentions of 254 physical therapy students at four-year universities were measured. A path analysi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 $p=0.150$ )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intentions, whereas risk-taking ( $p=0.000$ ) and proactiveness ( $p=0.001$ ) had significant effects. The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 $p=0.092$ ), physical support ( $p=0.280$ ), and informational support ( $p=0.813$ )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start-up intentions. A test of the effectiveness of start-up-related special lectures and start-up classes showed that students who attended start-up special lectures had higher average values in all measurement variables compared to students who did not attend such special lectures.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start-up intentions ( $Z=-1.986$   $p=0.047$ )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 lectures ( $p<0.05$ ).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lack of social support for the creation of start-ups by physical therapy students. To encourage their start-up intentions, it is recommended that a customized entrepreneurship curriculum be developed that stimulates the students' interest in creating start-ups through the provision of necessary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and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major.

**Keywords** : Entrepreneurship, Physical Therapy Students, Start-up, Start-up Intentions, Social Support

본 논문은 호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 Moon Kim(Howon Univ.)

email: kbandr@howon.ac.kr

Received August 16,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September 8,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1]. 보건 분야에서도 여러 직종에서 창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물리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2]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이 어려운 제도적 제한으로 물리치료 단독개업과 같은 전문물리치료 분야의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물리치료사에게 단독개업은 물리치료 전공과 관련된 창업을 의미한다. 실제로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은 단독개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단독개업이 가능할 경우 71.4%가 개업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물리치료 전공학생의 졸업 후 개원과 같은 창업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국내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분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정형물리치료 분야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스포츠 물리치료분야, 여학생은 신경계 물리치료분야로 조사되었다[4]. 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스포츠센터(11.5%), 산업체(5.4%)와 관련된 직장 선호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물리치료 면허증을 취득 후 보다 안정적인 진로선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을 위해 헌법소원, 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다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5]. 만약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이 가능해질 경우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리치료사들의 운동센터, 필라테스 센터, 건강관련 유튜브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 등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공관련 직업 창업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업형태는 통계학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물리치료 전공학생은 졸업 후 미래의 단독개업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시절부터 및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창업 관련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 과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창업과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의 자원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기 창업자의 성공요인으로는 기업가정신 요소를 가장 필요한 창업자의 자세로 보고하고 있는데[6,7],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

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정의하고 있다[8]. 또한 창업의사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9,10], 사회적지지의 세부 요인인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11-13]를 충분히 고려한 지지가 요구된다.

최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및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별 특성에 따른 창업교육은 미미한 편이다[14]. 보건계열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창업가특성과 창업과정 사이의 관계에서 대학의 창업지원 활동은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보건계열의 전공특성에 따른 맞춤형 창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볼 수 있다[15]. 선행연구는 보건계열의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창업의도를 검증하지 못하여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창업관련 주요 요인들을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물리치료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인식, 진로선호도, 독립개원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16,17], 독립개원과 같은 창업과 관련된 전공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물리치료 분야의 창업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개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23년 5월 2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모든 진행 절차는 H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B No: HWU-202303-003-01)의 승인에 준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 후 연구참여의 동의를 얻었다. 만약 설문조사일을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중이 아닌 자퇴, 휴학, 타학과 소속일 경우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무기명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60부 중 설문내용의 응답이 미흡한 6부를 제외하고 총 254부를 최종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 2.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문항의 설문 구성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자기평가기입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과모형 검증을 위해 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독일 GmbH사에서 개발한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유의수준 5%이내의 영향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 유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다.

## 2.3 측정도구

### 2.3.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은 기존의 관습, 풍속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완전히 변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이다[18]. 연구대상자의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해 Kim[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혁신성' 5 문항, '위험감수성' 5개 문항, '진취성'은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구성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문항별 Cronbach's alpha 계수로 '혁신성' 요인 0.768, '위험감수성' 요인 0.767, '진취성' 요인 0.770이었다. 본 연구에서 문항별 Cronbach's alpha 계수로 '혁신성' 요인 0.840, '위험감수성' 요인 0.754, '진취성' 요인 0.761로 나타났다.

### 2.3.2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지지만 도구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지역사회, 사회적인 관계망, 밀접한 인간관계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19].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의 측정을 위해 Im[12]의 설문지를 기반으로 '정서적지지'는 5개 문항, '물리적지지'는 3개 문항, '정보적지지'는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검사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서적지지' 요인 0.897, '물리적지지' 요인 0.869, '정보적지지' 0.90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정서적지지" 요인 0.873, "물리적지지" 요인 0.862, "정보적지지" 요인 0.881로 나타났다.

### 2.3.3 창업의지(start-up Intentions)

창업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혁신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목표를 의미한다[20]. 연구대상자의 창업의지 측정을 위해 Kim[2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0.8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0.949로 나타났다.

## 3. 연구결과

### 3.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이 131명(51.6%), 여학생이 123명(48.4%) 성별 분포는 비슷하였고, 학년별로는 1학년 58명(22.8%), 2학년 62명(24.4%), 3학년 60명(23.6%), 4학년 74명(29.1%)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현황은 창업특강 이수학생은 전체 70명(27.6%)으로 나타났고, 정규 창업과목 이수 학생은 55명(21.7%)으로 나타나 물리치료 전공 학생의 창업교육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N)	Ratio(%)
Gender	Male	131	51.6
	Female	123	48.4
Grade	Freshman	58	22.8
	Sophomore	62	24.4
	Junior	60	23.6
	Senior	74	29.1
	Special lecture		
Start-up education	Yes	70	27.6
	No	184	72.4
	Class		
	Yes	55	21.7
	No	199	78.3
Total		254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latent variables

Classification	Variable	Mean	S.D
Entrepreneurship (point)	Innovativeness	3.46	0.71
	Risk taking	3.40	0.65
	Proactiveness	3.90	0.57
	Total	3.59	0.55
Social support (point)	Emotional support	4.16	0.57
	Physical support	3.79	0.74
	Informational support	3.61	0.70
	Total	3.88	0.52
Start-up intention		3.28	1.02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Classification	Variable	Converge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xternal Validity	Measurement Variable Reliability	AVE	Cronbach's $\alpha$	rho_A	CR
Threshold Value		>0.70	>0.50	>0.50	0.6-0.9	>0.70	0.6-0.9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1	0.753	0.754	0.607	0.84	0.855	0.885
	Innovativeness 2	0.81	0.81				
	Innovativeness 3	0.854	0.853				
	Innovativeness 4	0.728	0.724				
	Innovativeness 5	0.745	0.742				
	Risk taking 1	0.752	0.748	0.506	0.754	0.761	0.836
	Risk taking 2	0.705	0.7				
	Risk taking 3	0.714	0.613				
	Risk taking 4	0.769	0.769				
	Risk taking 5	0.707	0.706				
	Proactiveness 1	0.786	0.791	0.511	0.761	0.765	0.848
	Proactiveness 2	0.768	0.785				
	Proactiveness 3	0.729	0.73				
	Proactiveness 4	0.736	0.737				
	Proactiveness 5	0.725	0.724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1	0.702	0.7	0.661	0.873	0.899	0.907
	Emotional support 2	0.867	0.866				
	Emotional support 3	0.847	0.849				
	Emotional support 4	0.828	0.828				
	Emotional support 5	0.813	0.813				
	Physical support 1	0.821	0.819	0.784	0.862	0.887	0.916
	Physical support 2	0.914	0.913				
	Physical support 3	0.917	0.918				
	Informational support 1	0.851	0.852	0.732	0.881	0.914	0.916
	Informational support 2	0.894	0.889				
	Informational support 3	0.804	0.8				
	Informational support 4	0.869	0.87				
Start-up intention	Start-up intention 1	0.894	0.894	0.832	0.949	0.95	0.961
	Start-up intention 2	0.938	0.938				
	Start-up intention 3	0.887	0.887				
	Start-up intention 4	0.921	0.921				
	Start-up intention 5	0.92	0.92				

### 3.2 변수의 기술통계량

연구 대상자의 기업가정신의 평균은  $3.59 \pm 0.55$ 점,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88 \pm 0.52$ 점, 창업의지의 평균은  $3.28 \pm 1.02$ 점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중 진취성(3.90 점)과 정서적지지(4.16점)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창업의지(3.28점)는 전체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Table 2).

### 3.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검토

#### 3.3.1 집중타당도 및 신뢰도 평가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Smart PLS 4.0 Algorithm을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가 0.7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측정변수의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모두 임계치 0.5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평가를 위해 평가한 결과 Cronbach's  $\alpha$ , rho\_A, CR값 모두 0.7 이상으로 임계치 이상값을 보여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다(Table 3).

### 3.3.2 판별타당도 평가

다음 단계로, 연구모델의 잠재변수들 사이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판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Smart PLS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평가하는데, 이를 위해 평균 분산 추출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Latent Variable Correlations)를 비교하였다. AVE 값은 각 잠재변수의 설명된 분산의 평균을 나타내며, 0.5 이상이어야 하고,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값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잠재변인에 대한 AVE제공은 잠재변인간 상관관계중 가장 높은 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Table 4).

### 3.4 구조모델 평가 및 연구결과

#### 3.4.1 구조모델 평가

본 연구의 구조모델 평가를 위해 Smart PLS 4.0을 이용하여 PLS 알고리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잠재 내생변수(예측변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였다. 내생변수간 다중공선성은 Table 5와 같이 Inner VIF 값을 임계치 5 미만으로 나타나 외생변인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by Fornell-Larcker Criterion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1] Physical support	0.885						
[2] Risk-taking	0.326	0.712					
[3] Informational support	0.391	0.289	0.855				
[4] Emotional support	0.561	0.386	0.389	0.813			
[5] Proactiveness	0.354	0.558	0.358	0.475	0.763		
[6] Start-up intention	0.346	0.565	0.266	0.420	0.564	0.912	
[7] Innovativeness	0.282	0.585	0.313	0.356	0.610	0.478	0.779

⊗ 대각선은 AVE 제공근임

Table 5. Multicollinearity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Inner VIF	F <sup>2</sup>	R <sup>2</sup>	adjust R <sup>2</sup>	Q <sup>2</sup>
Physic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559	0.006	0.426	0.413	0.381
Risk-taking → Start-up intention	1.737	0.095			
Information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302	0.000			
Emotional support → Start-up intention	1.742	0.012			
Proactiveness → Start-up intention	1.973	0.059			
Innovativeness → Start-up intention	1.837	0.007			

는 구조모델의 평가 기준으로 R<sup>2</sup>이 0.426으로 중간 정도 크기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 3.4.2 경로분석에 의한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경로분석에 의한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ig. 1은 Smart PLS 4.0에 의해 실행한 부트스트래핑 결과이며, 각 경로에 의한 화살표의 숫자는 경로 계수에 대한 t값을 의미한다. 경로분석 결과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소인 혁신성은 p값이 0.150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p값이 0.000과 0.001로 나타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로는 위험감수성이 t값이 4.835로 진취성 3.248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변수 중 정서적지지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 3.5 창업교육 이수에 따른 효과성 검증

창업특강 경험과 창업교과목 이수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특강을 경험한 학생은 경험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창업 의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p<0.05). 하지만 창업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비교하여 모든 측정변수에 평균값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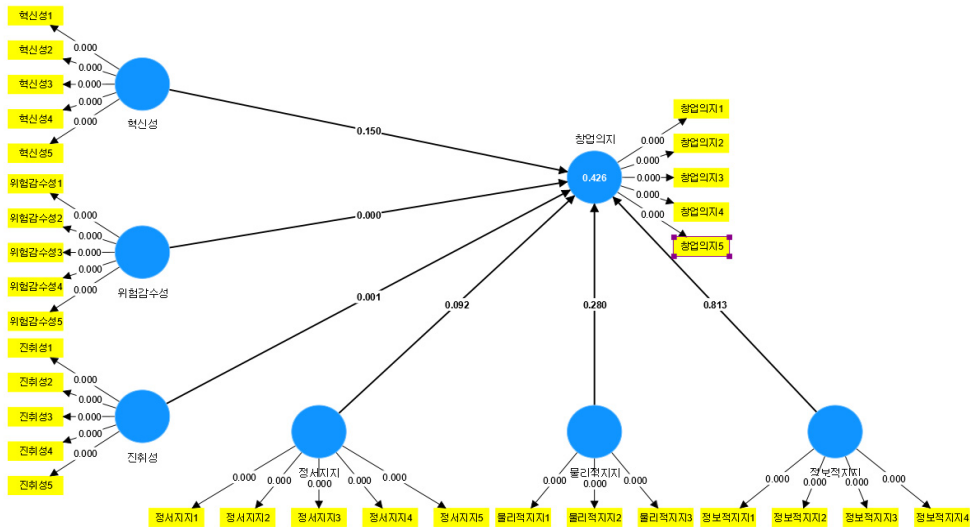


Fig. 1. Bootstrapping results using PLS-SEM

Table 6. "Path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variables

Classification	Path	Path coefficient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t	p	significance (p<0.05)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 Start-up intention	0.088	0.095	0.061	1.439	0.150	No
	Risk-taking → Start-up intention	0.308	0.309	0.064	4.835	0.000***	Yes
	Proactiveness → Start-up intention	0.258	0.259	0.079	3.248	0.001***	Yes
Social support	Emotional → Start-up intention	0.109	0.104	0.064	1.687	0.092	No
	Physical → Start-up intention	0.07	0.068	0.065	1.081	0.280	No
	Informational → Start-up intention	-0.014	-0.007	0.058	0.237	0.813	No

\* p<0.05, \*\* p<0.01, \*\*\* p<0.001

Table 7.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start-up education

Classification	Special lecture (point)		Z	p	Start-up education (point)		Z	p
	Yes(n=70)	No(n=184)			Yes(n=55)	No(n=199)		
Entrepreneurship(Total)	3.69±0.54	3.55±0.55	-1.827	0.068	3.63±0.55	3.58±0.55	-.620	0.535
Innovativeness	3.61±0.70	3.41±0.71	-1.848	0.065	3.50±0.73	3.46±0.71	-.250	0.803
Risk taking	3.51±0.65	3.36±0.65	-1.638	0.101	3.44±0.68	3.39±0.65	-.601	0.548
Proactiveness	3.95±0.58	3.89±0.57	-.984	0.325	3.96±0.54	3.89±0.58	-.585	0.558
Social support(Total)	3.93±0.47	3.87±0.53	-1.108	0.268	3.97±0.46	3.86±0.53	-1.359	0.174
Emotional support	4.19±0.52	4.15±0.59	-.678	0.498	4.24±0.51	4.14±0.58	-1.129	0.259
Physical support	3.78±0.69	3.79±0.76	-.056	0.956	3.85±0.70	3.77±0.75	-1.064	0.287
Informational support	3.72±0.67	3.57±0.70	-1.719	0.086	3.74±0.60	3.58±0.72	-1.093	0.274
Start-up intention(Total)	3.49±1.01	3.19±1.02	-1.986	0.047*	3.36±0.84	3.25±1.07	-.784	0.433

Mean±SD

\* p&lt;0.05, \*\* p&lt;0.01, \*\*\* p&lt;0.001

#### 4. 논의

우리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3.59±0.55점), 사회적지지(3.88±0.52점), 창업의지(3.28±1.02점)는 유사계열인 간호학과 학생들의 기업가정신(3.17±0.52점), 창업의지(2.32±0.99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22].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고, 세부적으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두는 창업의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창업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23]. 본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사회적지지 수준과 비교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평균점수가 낮았던 점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2] 사회적 현실에서 오는 창업욕구의 저하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 사회적지지, 창업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전무한 실정으로 비교 고찰에 어려움이 있고 확대해석에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변수 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인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p<0.001).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제시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24], 모든 전공계열을 포함

한 일반대학생에서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Bae[2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지, 동료 영향, 제도적 지원과 같은 사회적지지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1,26].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하위 요인들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지지, 물리적지지, 정보적지지의 3가지 요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물리치료전공학생의 경우 재학생 상태에서 창업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요인인 정보적지지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바, 물리치료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영역의 창업 전문성 강화와 창업 의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실시된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 이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4년제 물리치료전공 학생의 기업가정신은 3.59±0.55점으로 창업특강 경험(3.69±0.54점)과 창업교과목 이수(3.63±0.55점) 학생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 이수 유·무가 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업특강과 창업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창업특강 경험이 없고 창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여 각 변수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창업특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 창업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5$ ). 이러한 결과는 창업특강의 경우 단기간 창업 방향 설정과 창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창업교과목에서 운영되는 비전공 분야인 전문적 창업지식과 경영학적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물리치료(학)과 전공 학생은 개업권이 허가될 경우 13.9%가 ‘꼭 개설할 것이다’, 71.4%가 ‘여건이 된다면 개설할 것이다’로 응답하여 물리치료전공의 직접적 창업이 가능할 경우 창업의지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창업프로그램은 학생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전 행동 사이에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27]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고 잠재적 창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교과목 및 비교과목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의 확대와 더불어 창업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창업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비교과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28] 창업 교과목과 비교과 교육의 연계는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29] 대학 창업교육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설계가 요구된다.

그 외에도 교육품질이 우수한 창업교육 내용은 교육참여자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점을 고려하여 [30,31] 교수자는 사례중심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창업교육 전 사전지식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31].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는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3년제 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고, 중단적 변화를 검토할 수 있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물리치료전공 4년제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리적지지 등 사회적지지 요인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

다. 이는 물리치료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상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창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부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물리치료전공 학생들에 최적화된 창업지원을 위해 전공교육 또는 비교과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과 교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W. Lee, G. W. Kim, "A Study on Startup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Organizational Evolutionary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6, No.1, pp.161-184, 2021.  
DOI: <http://dx.doi.org/10.24878/tkes.2021.16.1.161>
- [2]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Act No.17643, 2020.12.15., Partial Amendment.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 (accessed Aug. 11, 2023)
- [3] J. Y. Song, "A survey of physical therapist and student's recognition about opening authority of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17, No.1, pp.25-39, 2005.
- [4] B. S. Park, A study on career preference after grad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pp.13-14, 2012.
- [5] J. C. Baek, S. H. Yang,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5, No.4, pp.138-146, 2011.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11.12.5.4.138>
- [6] H. R.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percep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mployee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y,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p.118, 2022.
- [7] T. U. Ahn, T. W. Kang, "The impacts of startups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ynamic cap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4, No.4, pp.39-49, 2019.  
DOI: <http://dx.doi.org/10.16972/apibve.14.4.201908.39>
- [8] M. Anwar, T. Clauss, W. B. Issah,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w venture performance in emerging markets: the mediating role of opportunity recognition",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Vol.16, pp.769-796, 2022.  
DOI: <http://dx.doi.org/10.1007/S11846-021-00457-W>
- [9] C. H. Kim, Y. H. Yoo,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dvancing Small Enterprise*



- Innovation Research*, Vol.22, No.3, pp.65-81, 2019.
- [10] H. J. Cho, D. S. Choi, C. S. Sung,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2, pp.81-96, 2020.  
DOI: <http://dx.doi.org/10.16972/apjbve.15.2.202004.81>
- [11] J. W. Ok, B. H. Hyun, E. S. Chang, J. M. Yang,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ntrepreneurial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1, pp.151-165, 2020.  
DOI: <http://dx.doi.org/10.16972/apjbve.15.1.202002.151>
- [12] G. S. 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support on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p.60-115, 2017.
- [13] Y. B. Cho, J. H. Son, K. B. Jung, N. Y. Lee,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general entrepreneur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1, pp.89-104, 2018.  
DOI: <http://dx.doi.org/10.16972/apjbve.13.1.201802.89>
- [14] C. H.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t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pp.1-4, 2019.
- [15] K. I. Lee, An Impact of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epending on startup education and recognition of self-employment support syste: focusing on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pp.59-61, 2018.
- [16] D. H. Kim, M. J. Shon,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ist for the awareness of necessity of opening independent clinic & professionalism of the physical therapis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2, pp.378-386,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2.378>
- [17] K. J. Lee, "A study on the job recognition and career preference of physical therapy maj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25, No.3, pp.32-42, 2018.  
DOI: <http://dx.doi.org/10.26862/jkpts.2018.12.25.3.32>
- [18] G. Nabi, F. Liñán, A. Fayolle, N. Krueger, A. Walmsley,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16, No.2, pp.277-299, 2017.  
DOI: <https://doi.org/10.5465/amle.2015.0026>
- [19] J. S. House,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ucture", *Sociological forum*. Vol.2, No.1, pp.135-146, 1987.  
DOI: <https://doi.org/10.1007/BF01107897>
- [20] B. Bird,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No.3, pp.442-453, 1988.  
DOI: <https://doi.org/10.2307/258091>
- [21] B. H. Kim, The effect of startup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moder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pp.102, 2022.
- [22] J. Y. Lim, G. M. Kim, G. J. Ko,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personality traits, and need for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6, pp.3361-3377, 2017.  
DOI: <http://dx.doi.org/10.37727/jkdas.2017.19.6.3361>
- [23] Altanzul, B. H. Lee, S. Y. Kim,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 s gender, age, and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Journal of Entrepreneurship Studies*, Vol.1, No.2, pp.47-68, 2020.  
DOI: <https://doi.org/10.22815/JES.2020.1.2.47>
- [24] B. S. Yoon, C. K. Kim, "A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3, pp.207-221, 2020.  
DOI: <http://dx.doi.org/10.16972/apjbve.15.3.202006.207>
- [25] B. Y. Bae.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4, pp.115-125, 2022.  
DOI: <http://dx.doi.org/10.16972/apjbve.17.4.202208.115>
- [26] M. F. Shahzad, K. I. Khan, S. Saleen, T. Rashid, "What factors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start-ups? the role of entrepreneurial skills, propensity to take risks, and innovativeness in open business models",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Vol.7, No.3, pp.173, 2021.  
DOI: <http://dx.doi.org/10.3390/joitmc7030173>
- [27] N. H. Othman, N. Othman, N. H. Juhdi "Do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ffect pre-start-up behavior in malaysia? a multi-group analysis approach" *Frontiers Psychology*, Vol.13, 738729, 2022.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2.738729>
- [28] C. H. Kim, D. W. Yang, "The impact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to credit and non-credit startu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mediating role of the education satisfaction and moderating role of the university's startup suppor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3, No.4, pp.116-139, 2018.  
DOI: <http://dx.doi.org/10.24878/tkes.2018.13.4.116>

- [29] H. J. An, S. H. Le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centering on customized start-up educatio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of d university students who received on-campus business consult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6, pp.51-70, 2022.  
DOI: <http://dx.doi.org/10.16972/apibve.17.6.202212.51>
- [30] Y. S. Yang, "The effects of the quality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ducating program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referring wil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3, pp.1071-1078, 201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0.11.3.1071>
- [31] M. S. Kim and Y. S. Yang, "The effects of embedding-study oriented entrepreneurship educating program on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referring wil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6, pp.2004-2012, 201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0.11.6.2004>

김 영 문(Young-M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예원예술대학교창업대학원 창업학과 (창업학석사)
- 2017년 8월 : 군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술경영, 창업보육, 기업가정신

왕 중 산(Joong-San Wang)

[정회원]



- 2005년 2월 :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 2015년 2월 :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심폐물리치료학, 근골격계운동치료학, 전기치료학

구 자 풍(Ja-Pung Koo)

[정회원]



- 2008년 8월 :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 2013년 2월 : 용인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포항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관심분야>

정형도수물리치료학, 근골격계물리치료학, 전기치료학